

월요광장

최제우 200년, 김대중 100년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4년 갑진(甲辰), 청룡의 해가 밝은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다. 지난해의 괴롭고 쓰라린 아픔들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앞날을 설계해야 할 그런 때를 맞았다. 더구나 금년이 어떤 해인가. 1824년에 태어난 수운 최제우(崔濟世)께서 이 땅에 나오신 200주년의 해요, 1924년에 태어난 우리 시대의 탁월한 정치가 김대중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의 사상을 이어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의 130주년을 맞는 해가 또 금년이다. 최제우·김대중·동학농민혁명을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조물주에게 감사해야 할 해가 바로 금년임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지난해 12월 18일 최제우 탄신 20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마쳤다. '인사천(人使天)'의 위대한 진리를 밝혀낸 수운선생의 탄신에 무한한 축하의 뜻을 올려바쳤다. 얼마전 1월 8일에는 김대중탄생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말에서나마 행사 전체를 지켜보면서 저처럼 탁월한 정치가가 같은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점에 감격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기도 했

다. 나는 평민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8년 동안 김대중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던 시절이 있었기에 그때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김대통령의 위대한 정치를 다시 발견하면서 더욱 감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100년 사이로 최제우·김대중의 탄생, 참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다.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뜻을 과거에는 '인내천(人乃天)'이라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인사천'이라고 최근에 밝혀졌다. 그래서 김대통령이 휘호를 할때마다 '인내천' 세 글자를 자주 쓰셨던 생각을 하면서 동학사상을 이어서 국민을 주인으로 여긴 '국민의 정부' 시절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 '동학과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읽어보고 세삼스럽게 김대중 사상의 근거를 찾아낸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끌리고 있다. "김대중은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란 동학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지향점이며, 그 기원아래 민중들이 떨치고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한 뿌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했다"라고 설명하고는 김대통령의 말씀을 바로 인용하였다. 옥중에서 이희호여사에게 보낸 편지에 "최수운(최제우)의 탄생은 이 땅에 정신사의 이적(異跡)이며 한 국민의 사상적 창조성의 한 표본"이라고, 또 "동학은 어디까지나 당시 농민을 위한 농민자의 종교였으며 반체제적이고 민족적이고 주체적인 종교"였다고 평가했다는 글이 참으로 좋았다. 김대통령의 해안은 정말로 탁월하다. 최제우의 탄생이 우리 민족의 정신사에서 '이적(異跡)'이라는 지적

부터 너무나 명쾌한 분석이다. 동학은 '농민을 위한 농민자의 종교'라는 표현도 정확하고, '반체제적이며 민족적이고 주체적이고 저항적인 종교'라는 분석도 너무나 올바른 평가였다. 나는 1990년 '김대중연설총람'을 편찬하면서 책 제목을 '사상과 능변'이라고 했다. 사상과 철학이 있는 정치가이면서 뛰어난 연설가여서 '능변'이라고 했지만, 그때 김대통령의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 탄생 100주년을 맞는 금년에야 김대통령의 정치사상과 정치철학에는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이 짙어 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농민·노동자 등 농민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일, 독재체제 및 유신체제, 쿠데타체제에 철저히 반대했고, 민족적이고 주체적인 외교를 통해 나라의 위상을 새롭게 제고한 점 등에서 모두 동학사상을 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독재체제에 강고하게 저항했던 본인의 정치적 투쟁을 기억해보면 더 명확하게 김대통령의 사상적 근거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알게 해준다. 오늘의 세상은 어떤가. 검찰독재가 강고하게 진행되면서, 사람이나 백성은 하늘이 아니라 짓밟을 대상으로 여기고, 민심과는 등을 돌리고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극우논리만 앞세워 민족정기까지 기를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최제우선생이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을 다시 생각하고 김대통령을 다시 기억하고 싶은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 모두 독재에 저항하고 '동학·동학농민혁명·행동하는 양심'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수필의 향기

이웃사촌



김향남
수필가

이사를 지 3년이 되었지만 특별하게 아는 이웃이 없다. 아침이면 나갔다 저녁이면 돌아오니 딱히 만날 기회도 없을뿐더러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러 승강기를 같이 타기도 하지만 짧은 목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다. 혹시 어린아이거나 강아지라도 안고 있는 경우엔 좀 다르긴 하다. 그럴 때면 공연히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호들갑스러워지곤 한다. '아유, 예뻐!' 소리를 연발하기도 하고, 굳이 몇 살인지 물어 가며 말을 걸어보기도 한다. 저렇듯 어린 것을 속에는 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앞에선 누구라도 마음을 놓게 되니 말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15층까지 있고 우리 라인에는 총 30가구가 살고 있다. 옛날 같으면 한 마을이고 한 골목인 셈이다. 그때 같으면 어느 집에 누가 살고 무슨 일이 있는지 훤히 쬐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모두 철옹성이 다.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제각기 자기만의 공간 속에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간다. 이웃사촌도 옛말이나 다름없다. 이웃도 사촌도 먼 데에 있을 뿐 차를 타고 나가거나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골목(한 라인) 사람이라도

데면데면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목인사라도 더 나누게 된 이웃이 생겼다. 나의 그릴 일이 없지 않음은 밖에서 서성거리는 일이 잦은 사람이다. 밤이건 낮이건 가리지 않는다. 몇 번씩을 거듭하면서 조금 내는 일도 없다. 출근나 등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한결같은 마음이다. 간혹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지도 않겠지만 아직 모르쇠로 일관할 모양이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몸이니 끊으려야 끊을 수도 없을 거다. 하여튼, 밖에 나가 한참을 서성다 오는 그가 연기만 내뿜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나간 김에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온다. 흡연의 대가치고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안의 배출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아침 저참 나가게 되는 남편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물고 오기도 한다. 몇 호 사는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어떤 취미를 갖고 있으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마치 텔레타에 다녀온 아낙네처럼 종알종알 듣고 온 것들을 내놓는 것이다. 그 참에 나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었그제 이사는 8층 남자는 전기공인데, 낚시가 취미여서 일하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을 낚시터에서 보낸다. 그래서 그의 차에는 항상 낚시도구는 물론이고 캠핑 장비까지 실려 있다는 것이다. 5층 아저씨는 인력판리소를 운영하는데 일차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업체를 알선하고, 또 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한다. 얼마 전엔 카페에 한 청년을 소개했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느라고 스트레스 깨나 받았다고... 13층 여자가 항상 개를 안고 다니는 이유도 알았다.

그녀의 품에는 볼 때마다 개가 안겨 있었는데 좀 유별나다 싶긴 했다. 그래도 그녀보다 했다. 나 역시 오랜 세월 개와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해 못 할 바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매년 찰떡처럼 붙어 있지는 않은데, 저 끔찍한 사랑은 대체 뭐란 말인가. 이반에 그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집에서는 절대로 배설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말을 듣자 새삼 그들의 존재가 가여워졌다. 삶에는 늘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기 마련이고, 그 어쩔 수 없음을 그들도 어찌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여서 그러는지 유독 그들이 눈에 띄었다. 분리수거장 앞 키 크고 빼빼 마른 남자가 담배를 물고 서 있거나, 낚시도구 같은 것을 차에 싣는 남자가 있으면 속으로 그 사람이겠구나 추측해보곤 했다. 어느 날 남편과 외출했다 돌아오면서부터는 나도 정식으로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나에게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은 적어둬야 할 것 같다. 늘 무심한 듯 땅바닥을 향하던 마음이 조금 긴장하게 되더라는 것. 이제 '익명의 자유'는 몰 건너갔구나 싶었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호기심이 생긴 것. 그러면서 비로소 이 골목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각성하는 것이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층층이 모여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득 애뜻하게 와닿았다. 이제야 각각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그런데 저건 뭐지? 이사를 사다리차가 우리집을 지나 높게 뻗어 있다. 세어보니 13층. 아, 오늘 그녀가 떠나고 있구나...

기고

'2024 세계경제포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나강렬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난 1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이 개최됐다. 4차 산업혁명을 유행시킨 WEF는 매년 1월, 세계 정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을 통해 지구적 차원의 공동 의제와 이슈들을 제시해왔다. 2024년 연차총회에서도 '신뢰 재건'이라는 주제하에서 전 세계 약 2800여 명의 정·계급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포럼 주최측은 홍보했다. 특히, 분절된 지경학적 시대의 안보협력, 전환시대 성장과 고용창출, 경제·사회 동력으로서 인공지능의 역할, 기후·자연·에너지 장기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위제와 토의, 그리고 의견 수렴 일정들이 소화되었다. 위제의 네 가지 의제들은 현재 전 지구가 경험하고 있는 전쟁, 저성장, 첨단 AI중심 사회, 기후위기에 대한 WEF의 진단과 해석임과 동시에 세계 각 정부가 검토해야 할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WEF는 전문가 150명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향후

2년 내, 그리고 향후 10년 내 지구촌이 직면할 위기들을 분석하여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보고서에는 2년 내 지구가 겪게 될 단기적 위기로 허위 정보와 위조된 정보, 극한 기후 재난사태, 사회적 양극화, 사이버 불안감, 국가간 무력충돌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10년 내 맞이하게 될 장기적 위기로는 극한 기후 재난사태, 회복 불가능한 지구 상황, 생물다양성 축소와 생태계 붕괴, 천연자원 고갈, 허위 정보와 위조된 정보 등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위기들을 지역에 대비시켜 보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선거 국면에서의 가짜뉴스 범람, 가상악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 고령층 및 저소득계층 복지 사각지대 고착,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불안감 증가 현상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대형 자연재난의 출현, 기후위기 임계점 돌파, 생태계 붕괴에 따른 도민 건강 저하, 주력산업의 에너지수급 위기, 허위정보로 인한 정치·사회적 갈등 심화가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WEF가 19년에 걸쳐서 전 지구적 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경고하는 이유는 지구촌 공동 위기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 정부의 대응 방안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차원에서 전남에서도 관련 분야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강수량, 폭염, 풍수해 등 강도가 높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예상 피해지역 등을 도출하고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 '초조

고령사회(?)'로 전환이 정해진 지역사회에서는 커뮤니티 공동체 회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예산의 적정 투입이 중요하다. 지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와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기후변화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생태계를 복원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경감시키기 위해 '생태백선'으로 개별되는 생활습을 근린생활권내 조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전남 주력산업에 대한 RE100 실현을 바탕으로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민·관·협업체를 구성하는 것 또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으로 짚을 수 있다. 보고서 말미에는 전 지구적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혁신적 노력과 공동 집단행동 등이 중요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 단적으로 대응하기 보단 중앙정부와 민간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총 망라하여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 지역민 스스로가 공동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 지구적 위기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지역사회 구성원간 신뢰관계 속에서 지금부터 대비 방안과 수용 태세를 면밀하게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더 풍부하고 기회가 더 공평하며, 기반이 더 안전한 전남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社說

막으론 민주당 경선... '시스템 공천' 지켜야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막을 올렸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당장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후보 적합도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국내 여론조사기관 6곳을 선정하고 통상사 제공 안심번호로 시민대상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는 광주권 지역구의 경우 예비후보들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합 후보로 자신을 선택해 달라며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관위는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실사도 진행한다. 실사팀은 지역구를 돌며 후보들에 대한 세평과 당원, 원로 면담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선거구 현황을 파악해 공관위에 보고하게 된다. 31일부터 2월 4일까지는 면접을 실시하고 컷오프를 통해 경선 후보자를 확정한다. 2월 15일부터 지역구별로 경선을 실시해 2월 말에 후보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이 경선에 앞서 공개한 공천 규정

을 보면 '현역 기득권 타파'라는 기조 아래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전까지는 하위 20%의 현역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했는데 이번 총선에선 하위 10% 의원의 감산 비율을 30%로 높였다. 반면 여성·장애인·청년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성별차이나 읍·면·동,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가산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3지대 신당이 등장하긴 했지만 민주당 경선이 호남에선 사실상 본선과 같다.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많고 후보자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잡음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민주당 스스로 약속한 것처럼 시스템 공천을 실천하는 길 밖에 없다. 정한 룰에 따라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친명 공천'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텃밭인 호남에서 제대로 된 공천이 이뤄져야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이다.

법 있어도 직장갑질 여전, 구제시스템 마련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직장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괴롭힘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상식을 넘어서는 행태도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었그제 광주지법은 일명 '생일빵'이라며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동료 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도 최근 부하 직원이 2년간 진행해온 연구 책임자 역할을 가로채고 협담을 일삼은 산하 연구소 소장 C씨에 대한 징징계를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

고 있다. 직장 갑질 119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66.7%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았고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와 '괴롭힘당한 사실이 알려지는데 싫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전체 48%는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퇴사로 이어지는 직장 갑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제대로 피해를 인정받는 게 어렵다 보니 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에이미는 성공한 사업가로 외견상 남부러울 게 없는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만족스럽지도 평온하지도 않다.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지만 늘 딸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짓눌린다. 또 다른 인물인 도급업자 대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지쳐 있다. 어느 날 에이미와 대는 할인마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다. 사소한 다툼은 이내 보복은 전으로 치달게 되는데, 두 인물의 내면에 잠재된 분노는 그렇게 불씨가 되고 만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송계 최우수 8관왕을 차지했다. 드라마는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에 휩쓸었다. 특히 한국계 연출가, 작가, 배우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작품이 에미상 주요 부문을 거머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작가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이성진은 수상 소감에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등장산교가 마이니시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석권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본명을 쓰기로 했다고 밝

했다. 남우주연상을 받은 스티븐 연은 2020년 영화 '미나리'에서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는 인물을 연기에 감동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한국계 배우로는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연기력을 입증한 바 있다. '성난 사람들'의 쾌거는 한국계, 특히 한국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드라마에서 마주하는 '한국적인 모습', 일대면 간식으로 등장하는 라면이나 영상 통화 등은 우리의 일상처럼 친숙하다. 그러나 사소한 시비가 보복은전으로 비화되는 일련의 서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시한폭탄의 사회'로 변모해버렸다. 정치적 노선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테러를 기하고, 선거와 관련해 낙인찍기도 횡행하고 있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사실만 주목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사소한 주차 시비를 모티브로 작품이 탄생했다는 점도 상기했으면 한다. 주위에 '성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박성천 문화부장·편집국장 skypark@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팩스 222-4918, 편집국인내, 편집부, 정지부, 경계부, 사회부, 전담부, 문화부, 예행부, 사진부, 체육부, 경영지원국, 기획관리국, 다자인실,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